

배포 일시	2022. 6. 3.(금)		
담당 부서 < 총괄 >	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윤 (044-201-4215)
			사무관 신우철 (044-201-4211)
			주무관 장휘량 (044-201-4220)
담당 부서	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유경수 (044-201-4244)
		담당자	서기관 강정현 (044-201-424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6월 8일부터 국제선 하늘길 더 넓어진다

-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, 국제선 조기 정상화... 국민부담 완화·항공회복 기대 -
- 원희룡 장관, 국제선 조속한 정상화 주문 후 관계부처 협의로 추진 돼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3일 열린 코로나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국무총리 주재)를 거쳐 「국제선 조기 정상화」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원 장관은 취임 직후, 최근 높은 국제선 운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 및 항공업계 현황 등을 보고받고, 다가오는 휴가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글로벌 기업활동과 항공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국제선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.
 -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-19 상황 및 유럽·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,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제선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- 이번 회의에서 논의 된 「국제선 조기 정상화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 6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항공규제 해제 》

- 코로나-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'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(이하 “슬롯제한” 20대→40대)과 비행 금지시간 (Curfew, 20시~익일 5시)이 2년 2개월만에 해제된다.
-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정상 운영됨에 따라,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,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《 6월 8일부터 항공수요에 따른 항공편 공급 추진 》

- 국토교통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규모를 매월 주당 100회~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하여 연내 국제선 50%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(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' 4.6),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-19 안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제선 운항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예정이다.

* (당초계획) '22.4.420회 → '22.5.520회(+100) → '22.6.620회(+100) → '22.7.920회(+300) ... → '22.12.2,420회(회복률 50%)
(변경계획) '22.4.420회 → '22.5.532회(+112) → '22.6.762(+230) → '22.6.8~ 수요에 따른 항공편 공급

- 지난 5월 13일 6월의 국제선 증편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주130회 늘어난 주230회 증편한 데 이어, 6월 8일부터는 증편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으로, 항공업계 회복과 항공권 가격 안정은 물론, 항공권이 부족해 해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애로도 해소될 전망이다.

* 6월 국제선 운항계획은 5월 대비 주230회 증가된 주762회 규모로 이미 인가하였으나, 추가로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증편 허가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추진

- 또한, 승객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및 국방부 등에서 안내 및 질서유지 인력을 지원하고, 신속한 검역심사가 가능한 Q-코드* 이용률도 제고하여 입국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도를 관리할 예정이다.

* 입국시 필요한 검역정보(PCR 음성확인서, 건강상태 질문서 등)를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Q-코드 사용시 공항에서의 검역 소요시간 1/2로 단축(60초→30초/인)

- 아울러, 6월 3일부터는 객실 승무원 보호장비 착용 및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하여 여행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.
 - 한편,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공 규제를 크게 개선하면서도 신종 변이 국내유입 등 위험에는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.
- 원 장관은 “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,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나 친지방문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”면서, “코로나-19 항공규제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,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(飛上)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